



# '05년 최고의 프로들

동아일보는 지난 한해의 문화예술계를 결산하며 각 장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05 프로들이 선정한 우리분야 최고'를 뽑고 8회에 걸쳐 연재했다. 과연, 지금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프로들은 누굴까?

## 미술계

국내 화단 관계자들은 '05년 최고의 전시로 이화여대 박물관(관장 윤난지)이 기획한 '시간을 넘어선 울림-전통과 현대' 전(5월 31일~7월 30일)을 꼽았다.

또 올 한 해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작가로는 장르별로 한국화에 박병춘(46), 서양화에 김홍주(60), 설치에 전수천(58) 최정화(44) 씨를 각각 꼽았다.

사진 분야에서는 한국적 서정이 담긴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배병우, 조각분야에서는 큐브작업으로 현대 조각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을 듣는 김주현 씨에게 표가 몰렸다.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과 인물 = 공간으로는 리움 미술관이, 사람으로는 충남 천안시 아라리오 갤러리 대표 씨킴이, 집단으로는 민예총과 미술인회의가 각각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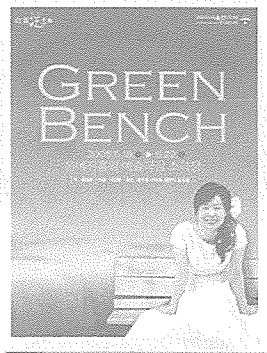
## 연극·뮤지컬

'05 최고의 연극에는 '그린벤치'가, 최고의 뮤지컬에는 '아이디'가 뽑혔다. 연극계 인사들은 문화예술위원회 출

범을, 뮤지컬계는 '소극장 창작 뮤지컬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05년 최대 이슈로 꼽았다.

연극분야 '최고의 연출가'와 '최고의 남녀 배우'엔 각각 오대석 극단 목화레퍼토리 대표와 이호재, 박정자가 뽑혀 2년 전과 결과가 같았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뮤지컬계에서는 남녀 배우의 세대교체 현상이 뚜렷했다. '최고의 남녀 배우'는 각각 조승우와 배해선이 차지했고, 최고의 차세대 남녀 배우에는 '벳보이'의 김수용과 '그리스'와 '겨울 나그네'의 윤공주가 뽑혔다. 최고의



연출가는 '아이 러브 유'의 한진섭.

### 문학

문인들에게 우리 문단 최고의 '고수(高手)'들을 물어보니 '최고의 시인'으로는 이성복, '최고의 소설가'로는 황석영, '최고의 평론가'로는 김윤식 씨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05 가장 뛰어난 시들을 써낸 시인'과 '20대의 젊은 독자들을 감안해 앞으로 갈수록 사랑 받을 시인'을 묻는 질문에는 공통적으로 문태준(35) 씨가 1위로 뽑혔고, '올해 가장 돋보이는 활동을 한 소설가'로는 김연수(35) 씨가 선정됐다.

올해 첫 작품집을 낸 신예인 김애란 씨는 차세대 유망 작가 1위로도 뽐혀 문단에서 주목하는 작가로 떠올랐다. 한편 공정한 문학평론가를 묻는 질문에는 유종호 교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한 평론가로는 정과리(47) 연세대 교수가 뽑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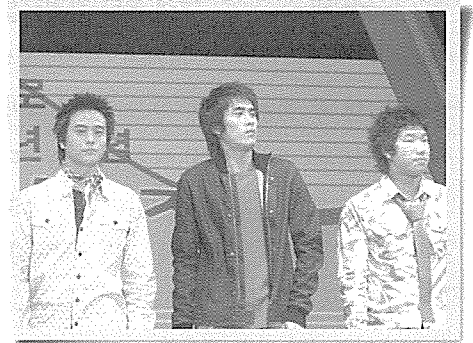


### 가요

'05년 두 장의 음반을 내 6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3인조 남성 그룹 'SG워너비'가 '2005년 최고의 가수'로 선정됐다.

'2005년 최고의 음반' 부문에서는 8인조 월드뮤직 밴드 '두 번째 달'의 데뷔 음반 '세컨드 문'이 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최고의 노래로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가 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005년 최고의 신인가수'는 5인조 아이돌 그룹 'SS501'이, '2005년 가장 과소평가된 가수'로는 6인조 그룹 '정원영 밴드'가 뽑혔다.



### 출판

국내의 중견 및 소장 출판인들은 2005년 한 해 출판물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출판사로 휴머니스트를, 디자인과 편집을 가장 잘한 출판사는 돌베개를 꼽았다.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사로는 민음사가 뽑혔다.

국내 저작물 부문 1위는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가, 최고의 번역 출판물은 '괴짜경제학'이 차지했다.

###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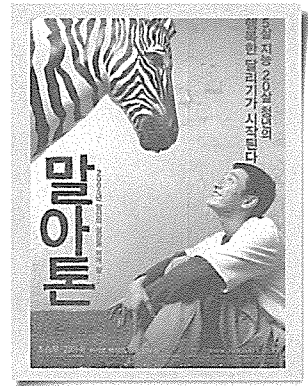
'05년 최고의 드라마로는 MBC '내 이름은 김삼순'이 뽑혔고, 최고의 드라마 PD도 '...김삼순'을 연출한 김윤철(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PD, 최고의 드라

마 작가 역시 '...김삼순'의 김도우 작가였다. 최고 오락 프로그램으로는 '상상플러스' (23명), 최고의 교양 프로그램은 MBC 'PD수첩' (28명)이 선정됐다.

**영 화**

'05 최고의 영화 제작자에는 '싸이더스FNH'의 차승재 공동대표가, 최고의 감독에는 박찬욱 감독이 뽑혔다. 또 최고의 남자배우에는 황정민이, 최고 여배우에는 전도연이 뽑혔으며 올해 최고의 영화에는 '말아톤'이 선정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신인배우'의 경우 남자는 이준기('왕의 남자')와 이태성('사랑니')이, 여자는 정유미('사랑니')가 1위에 올랐다.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로 최고의 위치에 올라섰다.



**클래식 음악 · 무용**

'05년 최고의 클래식 연주회 공연으로는 21년 만에 지휘자 사이먼 래틀과 함께 내한한 베를린 필의 연주가 꼽혔고,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한 연주자로는 쟁쟁한 대가들을 물리치고 젊은 피아니스트 임동혁(21)이 꼽혔다.

올해 무용 분야에서는 독일 부퍼탈무용단의 피나 바우슈가 한국을 소재로 안무한 '러프컷' 초연이 최고의 공연으로 꼽혔다. 올해 최고의 오페라 공연으로는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의 '니벨룽의 반지' 4부작 한국 초연이 꼽혔다.

이 오페라는 총 16시간이 넘는 방대한 스케일이다 역사적 초연이라 화제를 모았다. 한국인 최고의 성악가 부문에는 '라보엠'으로 국내 오페라 무대에 처음으로 선 소프라노 홍혜경이, 세계에서 활동중인 지휘자로는 정명훈이 압도적인 1위였다.



유망 차세대 연주자로는 피아니스트 손얼음이 꼽혔다. 한편 무용부문에서 한국인 최고의 발레 무용가와 최고의 한국 무용가를 묻는 질문에는 각각 강수진과 배정혜가 2003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다. 현대 무용가 홍승엽은 최고의 현대 무용가와 최고의 현대무용단 등 2관왕을 차지했다. ㉞